DBpia

원효의 미륵사상에 대하여

저자
(Authors)

최유진

출처
(Source)

종교연구 20, 2000.6, 207-226(20 pages)
Studies in Religion(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20, 2000.6, 207-226(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종교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7693

APA Style

최유진 (2000). 원효의 미륵사상에 대하여. 종교연구, 20, 207-22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1 14: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효의 미륵사상에 대하여*

최 유 진**

Ⅰ. 서 론

신라에서 미륵신앙은 불교의 전래 초기부터 널리 대중적으로 신봉되었다. 후대에는 미타정토 신앙이 널리 퍼져 미륵신앙을 압도하게 되지만 초기에는 미륵신앙이 오히려 미타정토신앙을 압도하고 있었고 화랑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1] 주목받아 왔다. 미륵신앙이 이와 같이 중요한 사상이었으므로 신라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미륵사상에 관련된 저술을 하여서 원효(元曉), 원측(圓測), 경흥(憬興), 태현(太賢), 의적(義寂) 등이 저술을 남겼다. 신라에서의 『미륵경』(彌勒經)에 대한 저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

元曉, 『彌勒上生經宗要』; 『彌勒上生經疏』[3]

---

* 이 논문은 1996년도 경남대학교 부설연구소 특별연구비에 의한 것임.
『종교연구』 20 (2000 여름), pp. 207-226.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1) 25대 진지왕(眞智王) 때에 흥륜사(興輪寺) 승려 진자(眞慈)가 당주(堂主)인 미륵상 앞에 나아가 화랑으로 화현하기를 빌었더니 미륵선화(彌勒仙花)가 나타났다고 한다. 즉 미륵이 미시랑(未尸郎)이라는 화랑으로 나타나 왕은 그를 국선(國仙)으로 삼았고 그는 7년간 현세에 있었다 한다. 이는 당시의 신라에 미륵 신앙이 성행함을 보여 주는 예이다(『三國遺事』 권3, 塔像제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그밖에 김유신의 화랑도를 용화향도(龍華香徒)라 불렀는데 용화란 말은 미륵이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할 것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륵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2)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編,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安啓賢, 「元曉의 彌勒淨土往生思想」, 『歷史學報』 17·18 合輯 (歷史學會, 1962) 참조.

3)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에 의하면 『彌勒上·下生經疏』(3卷)를 원효가 저술한 것으로 하면서 『東域傳燈目錄』(『大正新修大藏經』 55, 1152 上)의 기록에 『彌勒上下生經宗要』 1권 아래의 주에 "幷序一卷 幷疏一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다(p. 23). 그러나 현존서를 통해 볼 때 『彌勒上下生經宗要』가 아니라 『彌勒上生經宗要』이므로 병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圓測, 『彌勒上生經略贊』
憬興, 『三彌勒經疏(料簡記)』(『彌勒上生經料簡記』, 『彌勒下生經疏』, 『佛說彌勒成佛經疏』를 1권으로 합본한 것); 『彌勒經逐義述文』; 『彌勒經述贊』
太賢, 『彌勒上生經古迹記』; 『彌勒下生經古迹記』; 『彌勒成佛經古迹記』
義寂, 『彌勒上生經料簡』

그러나 현존하는 것은 원효의 『미륵상생경종요』와 경흥의 『삼미륵경소』의 두 종류밖에 안 된다. 본 논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원효의 미륵사상을 그의 『미륵상생경종요』에 의해 알아보고자 한다. 원효는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고, 대중적인 신앙 형태는 미타정토신앙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미타정토사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원효의 미타정토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대중적인 신앙인 미륵 신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미륵 신앙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라 할 수 있는 원효의 미륵사상을 고찰해 봄에 있어서 원효의 사상 안에서 미륵사상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륵 신앙이 가지는 시대적인 의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다.

Ⅱ. 『미륵상생경종요』의 구성과 다루는 문제

『미륵상생경종요』는 그 내용이 십문(十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십문은 1) 대의(大意)를 서술하고, 2) 종치(宗致, 주요한 가르침)를 구별하고, 3) 보살장(菩薩藏)인가 성문장(聲聞藏)인가 하는 이장(二藏)의 시비, 4) 삼경(三經)의 같고 다름, 5) 몸이 나는 처소, 6) 출세의 시절, 7) 이세(二世)의 유무, 8) 삼회(三會, 미륵불의 세 번의 법회)의 증감, 9) 발심(發心)의 오래 됨과 가까움, 10) 과보(果報)를 증득(證得)함의 전후(前後) 등의 열 가지이다.[4]

라고 할 때의 소도 『彌勒上生經疏』로 이해하여야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계현(安啓賢)도 『彌勒上生經疏』로 보고 있고(앞의 글, p. 245 참조), 조명기(趙明基)도 그렇게 보고 있다(『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신태양사, 1962, p. 99 참조).

4) 『彌勒上生經宗要』, 『韓國佛敎全書』(이하 韓佛로 약칭) 1, p. 547 中: "將說此經 十門分別 初述大意 次辨宗致 三二藏是非 四三經同異 五生身處所 六出世時節 七二世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1. 대의문(大意門)에서는 미륵 보살에 대해 찬탄하고 경의 제목을 해설하고 있다. 2. 종치문(宗致門)에서는 경의 근본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원효는 이관(二觀) 삼행(三行)의 인(因)과 사과(四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이장시비문(二藏是非門)에서는 미륵 신앙에서 중요한 세 경전(彌勒三部經: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佛說彌勒大成佛經』, 『佛說觀彌勒菩薩下生經』)이 대승(보살장)에 속하는가 아니면 소승(성문장)에 속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4. 삼경동이문(三經同異門)에서는 미륵 계통의 세 경전의 같고 다른 점을, 행하는 바(所爲), 나타내는 바(所詮), 지니는 바(所攝)의 셋으로 나누어서 논하고 있다. 5. 몸이 나는 처소에서는 경전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 미륵의 출생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6. 세상에 나오는 시절에서는 미륵불이 어느 겁, 어느 시절에 세상에 나오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7. 이세(二世)의 유무에서는 과거, 미래의 2겁 동안에 부처가 있고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8. 삼회(三會)의 증감에서는 삼회, 즉 미륵불의 세 번의 법회에서 제도하는 사람의 수에 대해 논의한다. 9. 발심의 오래 됨과 가까움에서는 미륵과 석가의 발심이 누가 먼저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10. 과보를 증득함의 전후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누가 먼저 과보를 증득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의와 『미륵상생경』에서의 관행(觀行)의 문제, 삼경의 동이 및 이장 시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자. 나머지 문제는 경전 상에 나타나는 여러 상이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이미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 논문[5]이 있고 원효 이전에 주석서를 낸 길장(吉藏)과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원효는 각 경전에 나타나는 미륵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점을 그 근본 정신에서부터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종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원효는 『미륵상생경』에 대해 『미륵상생경종요』의 대의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 경은 바로 지인(至人)의 하늘에 드리운 묘한 자취를 찬탄하고 중생에게

有無 八三會增減 九發心久近 十證果前後."

5) 안계현, 앞의 글; 許庚九, 「元曉의 彌勒思想」,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89); 許庚九, 「元曉의 彌勒上生經典觀」, 『韓國思想史: 釋山韓鍾萬博士 華甲紀念論文集』 (익산: 원광대학교, 1991) 등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 관법[觀] 닦기를 권하는 참 경전이다. 미륵보살이란 자비로운 깨달은 이[慈氏覺士]라는 뜻이니, 현겁(賢劫) 천불(千佛) 가운데 다섯 번째의 여래이다. 불사불(弗沙佛) 때에 먼저 자비의 선정을 익혀 그 마음을 흠뻑 닦아 드디어 항상된 성품을 이루었으므로 그 뒤로는 늘 자씨(慈氏)라고 일컬었으며 부처가 된 뒤에도 그 이름을 그대로 썼다. 도솔타란 번역하면 지족(知足)으로서 욕계(欲界) 6천(天) 가운데 제4천이다. 아래로 3천은 가라앉은 욕정이 무겁고 위로 2천은 들뜨고 방일한 마음이 많은데, 이 제4천은 욕정이 가볍고 방일한 마음이 적으며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아, 티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知足이라고 한다. 온갖 수용(受用) 도구를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생각에 따라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하늘[天]이라고 하며, 보살이 인간으로부터 천상에 오르기 때문에 上生이라고 한다. 수행하는 이가 생각을 고요히 하여 생각하고 살피기 때문에 관(觀)이라고 하며, 금구(金口)를 열고 옥구(玉句)를 말하여, 기름지고 윤택한 법우(法雨)를 내리고 부처 종자의 꽃과 열매를 이루기 때문에 불설(佛說)이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나 이 경을 받들어 지니고 저 하늘을 관찰하면, 그는 곧 묘악(妙樂)의 깨끗한 곳에 나서 자씨(慈氏)의 지인(至人)을 받들 수 있으며, 물러남이 없는 성인의 뜰에 올라가 죽음의 붓 티끌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의를 들어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설관미륵보살상생두율타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陀天經)이라고 하는 것이다."[6]

미륵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 미륵을 흠모하여 미륵이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경전이 『미륵상생경』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핵심은 관법에 있음을 이 대의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 근본 뜻을 밝히는 宗致에서는 더욱 그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원효는 미륵신앙에서 관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6) 『彌勒上生經宗要』, 韓佛 1, p. 547中-下: "今此經者 斯乃略歎至人垂天之妙迹 勸物脩觀之眞典也 彌勒菩薩者 此云慈氏覺士 賢劫千佛之內 是其第五如來弗沙佛時 無習慈定熏脩其心 遂成常性 從此已來 每稱慈氏 乃至成佛 猶立是名也 兜率陀者 譯曾知足 欲界六天之中是其第四天 下三沈欲情重 上二浮逸心多 此第四天 欲輕逸少 非沈非浮 莫蕩於塵 故名知足 諸受用具 不待營作 隨念自然 故名爲天 菩薩從人昇天 故曰上生 行者靜慮思察名之爲觀 聞(開?)金口演玉句 澍法雨之沃闡 成佛種之華菓 故言佛說 若人受持此經觀察彼天 則能生妙樂之淨處 承慈氏之至人 登無退之聖階 謝有死之凡塵 擧是大意 以標題目 故言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陀天經云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Ⅲ. 원효의 관행(觀行)에 관한 이론

원효의 사상에서 차지하는 일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륵 사상에서도 일심을 위주로 볼 것이 예상된다. 그것이 관법(觀法)의 강조로 나타난다. 원효에 있어서는 관법에 의해 마음을 닦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미륵신앙에서도 미륵을 관에 의해 현생에서 바로 보는 것을 상품인(上品人)을 위한 것으로 하고 관행에 의해 상생해서 미륵을 본다는 『상생경』은 중품인(中品人)을 위한 것으로 판정하고 미륵의 하생을 기다리는 『하생경』, 『성불경』은 하품인(下品人)을 위한 것으로 한다.[7]

원효는 앞서도 인용하였듯이 『미륵상생경』을 "지인(至人)의 수천(垂天, 하늘 가득히 드리움)의 묘적(妙迹)을 간략히 찬탄하고 사람들에게 관을 닦는 것을 권유한 진전(眞典)"[8]이라 하여 이 경의 핵심이 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관을 닦아 미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저 하늘을 관하고 살피면 능히 묘악(妙樂)의 정처(淨處)에 나서 자씨(慈氏)의 지인(至人)을 이어 받아 무퇴의 성계(聖階)에 오르고 죽음의 범진(凡塵) 세계를 여읠 것이다"[9]라고도 말하여 관을 하는 것이 저 하늘 즉 도솔천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물론 관(觀)은 단순히 도솔천의 모습만을 관하는 것은 아니다. 미륵보살을 관찰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경의 종치를 밝히는 부분에서도 "이 경은 바로 관행의 인과로 종을 삼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태어나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치(意致)로 삼는다"[10]고 하여 관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과 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원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른바 관(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그 하늘의 의보(依報)의 장엄을 관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 보살의 정보(正報)의 뛰어남을 관하는 것이

---

7) 다음 장(IV. 미륵계의 세 경의 같고 다름) 참조.

8) 『彌勒上生經宗要』, 韓佛 1, p. 547 中-下: "今此經者 斯乃略歎至人垂天之妙迹 勸物修觀之眞典也."

9) 같은 책, p. 547 下: "若人受持此經 觀察彼天 則能生妙樂之淨處 承慈氏之至人 登無退之聖階 謝有死之凡塵."

10) "此經 正以觀行因果而爲其宗 令人生天 永無退轉 以爲意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 다. 오로지 생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삼매라 하는데, 수혜(修慧)가 아니고 오직 문혜(聞慧), 사혜(思慧)에 있으니 그것은 다만 전광삼매(電光三昧)라 하는데 경안(輕安)함이 없고 욕계(欲界)의 인(因)이 된다.[11] 이른바 행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大慈라는 이름을 듣고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요, 둘째는 慈氏라는 이름을 듣고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덕을 신앙하는 것이며, 셋째는 탑을 쓸고 흙을 바르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는 등 온갖 사업을 행하는 것이니 아래의 글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12]

이와 같이 도솔왕생의 인을 2관과 3행에 두었는데 이관은 의보의 장엄 즉 미륵의 세상이 훌륭함을 생각으로 관찰하는 것과 미륵 보살의 뛰어난 모습을 생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세 가지 행은 첫째는 미륵의 이름을 듣고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둘째는 미륵의 이름을 듣고 그 덕을 믿는 것이고 셋째는 탑을 쓸고 흙을 바르는 등의 여러 사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과 세 가지 행이 합하여져서 뿌리가 되고 그에 따라 네 가지 과보가 나온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 관(觀)과 이 행을 합해 한 뿌리를 만들면 거기서 생기는 과(果)에 대략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싹과 줄기가 흙을 떠나는 과요, 둘째는 꽃과 잎이 시원한 그늘이 되는 과이며, 셋째는 묘한 꽃이 피는 과요, 넷째는 향기로운 과일이 이루어지는 과이다. 첫째의 싹과 줄기가 흙을 떠나는 果란 이른바 과거에 지은 온갖 죄를 멸하는 것이니, 이것은 첫째 행에 의해 얻어지는 과이다. 둘째의 꽃과 잎이 시원한 그늘이 되는 과란 이른바 3도(途)와 변지(邊地)와 사견(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둘째 행에 의해 얻어지는 과이다. 셋째의 묘한 꽃이 피는 果란 이른바 도솔천의 묘한 의보(依報), 정보(正

---

11) 이것을 박성배는, "이러한 관은 정신을 통일하여 골똘하게 하는 관이기 때문에 삼매라고 부른다고 한다. 비록 삼매라고 이름 붙였지만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원효의 부탁이다. 한마디로 모두가 욕계의 인이라는 것이다. 욕계란 매사에 욕심이 끼어 있는 보통 사람들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궁극적인 편안함이 없고 따라서 그런 삼매는 영원한 삼매가 아닌 번갯불 같은 삼매이다. 이런 삼매는 문혜, 사혜, 수혜 등 삼혜 가운데 마지막인 수혜는 될 수 없고 처음의 둘인 듣고 생각하는 차원의 삼매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박성배, 「Alan Sponberg의 "미륵상생경종요해설"을 읽고」,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 한국사상사학회, 1994, p. 183). 덧붙여 말하자면 욕계의 인이 되는 이유는 미륵의 도솔천이 욕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욕계의 인이 되는 삼매는 쉬운 삼매이다.

12) **"所言觀者 有其二種 一觀彼天依報莊嚴 二觀菩薩正報殊勝 專念觀察故名三昧 而非脩慧 唯在聞思 此但名爲電光三昧 而無輕安 是欲界因也 所言行者 略有三種 一者聞大慈名 敬心悔前所作之罪 二者聞慈氏名 仰信此名所表之德 三者行於掃塔塗地香華供養等諸事業 如下文說"**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報)를 얻는 것이니 이것은 셋째 행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의 향기로운 과일이 이루어지는 과란 이른바 위없는 도에서 퇴전(退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앞의 2관(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왜냐 하면 보살의 의보, 정보를 관찰하기 때문에 저 하늘에 날 때에는 몸소 성인의 지도를 받들어 영원히 아뇩보리(阿耨菩提)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2관에 의해 제4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자씨(慈氏)의 이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질고 착한 덕을 믿고, 성현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곳을 멀리 떠나 항상 정견(正見)을 따르면서 권속을 성취하나니, 그러므로 이름을 들음에 의하여 제2과를 얻는 것이니, 다른 두 인과는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관행으로 인과를 성취하면 위없는 아뇩보리에 저절로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나니, 이것을 일러 상생(上生)의 과(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13]

이관(二觀)과 삼행(三行)에 의해 4종의 과가 나온다고 본다. 먼저 세 행에 의해 세 결과가 나온다. 제1행 즉 대자(大慈)란 이름을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행으로 과거에 지은 온갖 죄를 멸하는 제1의 결과가 나오며 제2행 즉 자씨(慈氏)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나타내는 덕을 신앙하는 행에 의하여 3도(途)와 변지(邊地)와 사견(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제2의 과를 얻는다.[14]

---

13) 『彌勒上生經宗要』, 韓佛 1, p. 548 上-中: "此觀此行 合爲一根 所生之果 略有四種 一者牙莖離土之果 二者華葉蓊凉之果 三者妙華開敷之果 四者芳菓成就之果 第一牙莖離土果者 伏滅前來所作衆罪 是因初行所得果也 第二華葉蓊凉果者 不墮三途邊地邪見 因第二行所得果也 第三妙華開敷果者 謂得兜率依正妙報 因第三行之所得也 第四芳成就果者 於無上道得不退轉 依前二觀之所得也 所以然者 觀察菩薩依正報故 生彼天時 觀承聖導 永不退於阿耨菩提 故依二觀 得第四果 由聞慈氏之名 信其仁賢之德 遠離不聞賢聖名處 恒隨正見 成就眷屬 故依聞名 得第二果 餘二因果 相當可知 如是觀行因果成就 無上菩提自然而至 是謂上生之果之所致也."

14) 안계현은 제1의 행과 제2의 행이 둘 다 문명(聞名)이어서 하나는 칭명(稱名)으로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곧 제2행 즉 문명의 과가 삼도나 변지,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상생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제1행의 과는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는 것인데, 『상생경』에 보면 문명에 의해 죄를 멸한다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칭명에 의해 죄를 멸해준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이해하면 제1행을 칭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앞의 글, pp. 267-268 참조). 그러나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는 문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덕은 꼭 그 덕을 신앙하여 삼도나 변지,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미륵상생경』에서는 이름을 듣고 미륵보살에게 공경 예배함에 의해 도솔천에 왕생할 수가 있다고 하고, 또 다만 이름만을 들어도 악도나 변두리나 삿된 소견을 가진 곳이나 나쁜 짓 하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름을 듣고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면 도솔천에 왕생한다는 등으로 여러 가지 공덕이 바로 이름을 듣는 것과 연결하여 설해지고 있다(이종익 편저, 『미륵성전』, 서울: 운주사, 1992, pp. 29-32 참조). 따라서 문명의 과가 여럿일 수 있으므로 문명을 칭명으로 바꾸어야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제3행은 탑을 쓸고 흙을 바르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는 등의 온갖 사업을 행하는 것인데 이 행에 의해 도솔천의 묘한 의보(依報), 정보(正報)를 얻는다. 최종적인 가장 높은 결과는 이관(二觀) 즉 저 하늘의 의보가 장엄함을 관하는 것과 보살의 정보가 수승함을 관하는 것에 의해 무상도(無上道)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는다. 이와 같이 원효에 있어서는 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Ⅳ. 미륵계의 세 경의 같고 다름

미륵신앙을 중점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 중 중요한 것을 미륵육부경(彌勒六部經)이라고 한다. 미륵육부경은 다음과 같다.

1. 불설미륵래시경(佛說彌勒來時經, 大正 457), 역자 불명.
2. 불설미륵하생경(佛說彌勒下生經, 大正 453), 축법호(竺法護) 역(?) (303년?).
3. 불설미륵하생성불경(佛說彌勒下生成佛經, 大正 454), 구마라집(鳩摩羅什) 역(402년?).
4.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 大正 456), 구마라집 역, 402년.
5. 불설미륵하생성불경(佛說彌勒下生成佛經, 大正 455), 의정(義淨) 역(701년).
6.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正 452), 저거경성(沮渠京聲) 역(455년?).

육부경 중에서 중요한 경전 셋(일반적으로 3, 4, 6)을 미륵삼부경이라고 한다.[15] 원효는 삼경동이(三經同異)를 논하면서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의 같고 다름을 논하고 있는데 그 3경이 이 6부경 중의 어느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3, 4, 6을 삼부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원효도 그런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데, 허경구에 의하면 경흥은 2, 3, 6을 미륵삼부경으로 하고 있고, 원효의 경우는 3, 4, 6을 삼부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16] 이제 이 세 가지 경전 사이에 같고 다름을 논하지만 크

로 보인다.

15) 渡辺照宏 著, 呂益九 譯, 『사랑과 평화의 마이트레야』 (서울: 여래, 1983), p. 89 및 速水侑, 『彌勒信仰』(評論社, 1991), pp. 15-16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게 보면 도솔천에의 상생을 논하는 『상생경』과 미래에 하생하여 성불한다는 것을 설하는 『하생경』 및 『성불경』의 두 종류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의 두 종류의 신앙이 있게 된다. 원효는 하생신앙보다는 상생신앙을 중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효는 세 경전의 상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상생경』과 『하생경』과 『성불경』의 셋은 그 관계에서 대략 세 가지의 같고 다름이 있다. 첫째는 행하는 것이 같고 다름이고 둘째는 나타내는 것이 같고 다름이며 셋째는 포섭하는 것이 같고 다름이다. 행하는 것이 같고 다르다는 것은 관행(觀行)을 닦는 것이니 여기에 3품이 있다. 상품인 사람은 혹은 관불삼매(觀佛三昧)를 닦거나 혹은 참회의 행법(行法)에 의하여 현재의 몸으로 미륵을 보며 마음의 우열을 따라 형상의 크고 작음을 보는데, 이것은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과 『대방등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에서 설한 바와 같다. 중품의 사람은 혹은 관불삼매를 닦거나 혹은 온갖 깨끗한 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버린 후에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을 보고 불퇴전에 이른다. 이것은 『상생경』에서 설한 바이다. 하품의 사람은 보시와 지계 등의 종종의 선업을 닦고 이것에 의해 미륵을 보기를 발원하고는 이 몸을 버린 후에 업에 따라 생을 받는데, 미륵이 성도한 때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세존을 보고 삼회에서 득도하나니 이는 『하생경』 『성불경』의 설과 같다. 곧 『상생경』에서 말하는 바는 중품의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두 경은 하품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
> 둘째 나타내는 것이 같고 다르다는 것은 이른바 『상생경』에서 나타낸 것은 곧 하늘의 보응과 보살의 공덕에 대해서였고, 다른 두 경은 사람의 과보와 성불 등의 모습을 밝힌 것이다. 이 뒤의 두 경은 서로 광략(廣略)이 있지만 그 나타낸 진리의 대의는 다 같다.
>
> 셋째 지닌 것이 같고 다르다는 것은 이른바 『상생경』은 보살장에 속하나니 그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다른 두 경은 성문장에 속한다. 왜냐하면 『성불경』은 장아함에서 나오고 『하생경』의 글과 깊고 얕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성도를 말하면서 응현(應現)을 밝히지 못하고, 경에 의해 이익을 얻되 소승의 과를 증득하는 것뿐이니, 그러므로 그것들은 보살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옷을 짓는 데는 짧은 바늘이 필요하고 긴 창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으며, 비를 피할 때에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고 온 하늘을 덮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작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니, 그 근성을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다 보배이니라.[17]

---

16) 許庚九, 「元曉의 彌勒思想 硏究」, p. 31 참조. 안계현도 경흥이 의거한 삼미륵경은 저거경성 역인 『불설관미늑보살상생두솔천경』과 축법호 역인 『불설미륵하생경』 그리고 구마라집 역인 『불설미륵하생성불경』이라고 하였다(안계현, 「憬興의 彌勒淨土往生思想」, 『震檀學報』26, 1964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미륵관계 저술에 대해 일단 『상생경』은 대승, 『하생경』, 『성불경』은 소승으로 판정한다.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뜻과 같다는 것은 『종요』의 3.이장의 옳고 그름을 밝힘(明二藏是非) 부분에서 『상생경』이 대승에 속하는가 아니면 소승에 속하는가를 논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부분에서 원효는 대승이라는 설과 소승이라는 설을 모두 소개한 뒤 대승교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원효 이외에 『미륵경』에 대한 해설서를 남기고 있는 길장이나 규기, 경흥의 견해를 살펴보면, 길장은 『상생경』-대승 종체, 『하생경』-소승 종체로 보고 있으며, 규기는 『상생경』을 대소 양승으로 보고, 경흥은 세 설(전체 소승, 전체 대승, 『상생경』 대승이고 나머지 소승이라는 세 설)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전의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기는 『상생경』이 상품행생(上品行生), 중품행생, 하품행생 모두 있다고 보고 있고, 경흥은 『상생경』이 상품인생(上品因生), 중품인생, 하품인생 모두 있다고 보나 또 한편으로는 상품수자(上品修者), 중품수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18]

원효는 길장과 같이 『미륵상생경』을 대승으로 판정하지만 소승으로 판정된 경전의 가치도 무시하지는 않는다. 원효의 화쟁적 태도로 보아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원효가 무조건 다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흥은 미륵경 세 종류에 대해 모두 주석을 남기고 있는데 원효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효의 미륵 관계 저술은 현존하는 것으로는 『미륵상생경종요』가 있고 현존하지는 않지만 『미륵상생경소』를 저술했음을 알 수 있는데[19] 『상생경』은

17) 『彌勒上生經宗要』 韓佛 1, 549上-中: "次第四明三經同異者 上生下生及成佛經 相望略有三種同異 一所爲同異 二所詮同異 三所攝同異 言所爲同異者 修觀行也 有其三品 上品之人 或脩觀佛三昧 或因懺悔行法 卽於現身 得見彌勒 隨心優劣 見形大小 此如觀佛三昧海經及大方等陀羅尼經說也 中品之人 或脩觀佛三昧 或因作諸淨業捨此身後 生兜率天 得見彌勒至不退轉 是故 上生經所說也 下品之人 脩施戒等種種善業 依此發願願見彌勒 捨此身後 隨業受生 乃至彌勒成道之時 要見世尊三會得度 是如下生成佛經說 是卽上生所爲 爲中品人 餘二經者 爲下品人也 第二所詮有同異者 上生所詮 是天報應菩薩功德 餘二經者 詮於人報成佛等相此後二經 互有廣略 其所詮理 大意同也 第三所攝有同異者 上生經者菩薩藏攝 義如前說 餘二經者 聲聞藏收 所以然者 其成佛經 出長阿含 下生經文 深淺不異 又說成道 未明應現 依經得益 證小乘果 以之故知非菩薩藏 然縫衣之時 短針爲要 雖有長戟 而無所用 避雨之日 小蓋是用 普天雖覆 而無所救 是故 不可以小爲輕 隨其根性大小皆珍者也."

18) 安啓賢, 「元曉의 彌勒淨土往生思想」, pp. 252-57 참조.

19)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에는 『彌勒上下生經疏』(3卷)를 원효가 저술한 것으로 하고 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생경』, 『성불경』은 그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 중 어느 것을 원효가 더 중시하였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해 보도록 하자. 속수유(速水侑)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미륵신앙은 초기에는 아미타신앙보다 먼저 상생신앙(도솔상생과 극락왕생이 섞여 있는 형태가 많다)이 발달하였으나 미타신앙이 정토신앙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내세신앙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잃어버린 미륵신앙 중에서 하생신앙이 현세신앙적 색채를 띠고 발달해서 "현세의 정토"를 실현하려고 하는 민중반란 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며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 한다.[20] 이 말처럼 신라에서도 상생신앙에서 하생신앙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1] 신라에서의 당시까지의 미륵신앙에 대한 자료는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함께 나타난다. 죽은 조상이 좋은 데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미륵불상을 만든 예 등은 상생신앙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것은 비교적 초기의 불상들에서 발견되고 미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생신앙인데 이는 그보다 후대에 많이 나타난다. 원효 당시의 주된 미륵신앙은 아마도 하생신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화랑과 결합된 미륵신앙 등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데[22] 화랑과 결합된 미륵신앙은 확실히 하생신앙이고 이미 진흥왕 때에 화랑제도가 확립되므로 원효 당시에는 이미 미륵신앙 중에서는 하생신앙이 좀더 유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륵신앙 중에서도 원효는 하생신앙은 낮은 단계의 것으로 취급하였다. 하생신앙의 경전인 『미륵하생경』과 『성불경』을 성문장(聲門藏)으로 취급하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으나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인정할 수 없다(앞의 각주 2 참조).

20) 速水侑, 앞의 책, p. 45 참조.

21) 상하생(上下生) 신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경전의 성립은 『하생경』이 먼저이다. 그것은 『상생경』에 『하생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하생신앙이 나중에 더욱 성행하는 것이다. 경전이 성립된 순서대로 우리 나라에 소개되고 그 신앙이 성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22) 25대 진지왕(眞智王) 때에 흥륜사(興輪寺) 중 진자(眞慈)가 당주(堂主)인 미륵상 앞에 나아가 화랑으로 화현하기를 빌었더니 미륵선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즉 미시랑이라는 화랑으로 나타나 왕은 그를 국선(國仙)으로 삼았고 그는 7년간 현세에 있었다 한다. 이도 신라 당시에 미륵 신앙이 성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생 신앙으로서의 미륵 신앙이 그렇게 성했음을 보여주는 예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三國遺事』 卷3 塔像第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條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그렇게 본다면 원효의 경우도 하생신앙보다는 상생신앙으로서의 미륵신앙을 중시한 것이다. 유식학을 널리 공부한 원효의 입장에서 볼 때 미륵신앙 중에서 상생신앙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3] 그러나 하생신앙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24] 그리고 원효의 근본 입장은 일심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정토신앙에서도 일심을 강조하고 있거니와 미륵신앙에서도 하생신앙보다는 상생신앙 그리고 상생도 단순한 신앙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는 쪽을 중시한다. 일심에로의 귀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원효의 태도가 미륵사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미륵신앙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 미륵보살에 대한 믿음 등으로 도솔천에 태어난다. 원효는 그 중에서 관을 강조한 것이다.

V. 미타정토와 미륵정토의 우열에 대한 문제

당의 도작(道綽)은 『안락집』(安樂集) 권상(卷上)에서 "미륵은 천중(天衆)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신(信)을 행하는 자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고 있으나, 신이 없는 자도 많고 이러한 사람들은 구제 받을 수 없다. 또한 도솔천에 왕생하면 수명 4,000세—1일은 인계(人界)의 400년—라 하고 있으나 수명이 끝난 뒤는 퇴락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극락은 삼계를 출계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윤회함이 없고 수명은 불(佛)과 같다"는 등 네 가지 점을 들어 극락이 더 우수한 것이라 하고 있다.

---

23) 유가사상의 성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無著은 도솔천의 미륵보살에게서 유식의 도리를 직접 배웠다고 하여 無著 이후의 유식학파에서는 미륵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중국에 유식사상을 전파한 玄奘도 미륵신앙을 갖고 있었고 임종할 때에도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였다. 그리고 중국 법상종의 창시자인 규기도 미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吳亨根, 「新羅 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佛教思想研究院 編, 『韓國彌勒思想研究』(동국대학교 출판부, 1987), pp. 62-70 참조.

24) 그러나 그는 『下生經』, 『成佛經』이 소승에 속한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하생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입장은 아니다. 『下生經』과 『成佛經』이 소승에 속한다고 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옷을 짓는 데는 짧은 바늘이 필요하고 긴 창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으며, 비를 피할 때에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고 온 하늘을 덮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작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니, 그 근성을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다 보배이니라"(『彌勒上生經宗要』, 앞의 각주 17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또한 가재(迦才)는 『정토론』(淨土論) 권상(卷上)의 중(中)에서 "도솔천에는 남녀가 잡거(雜居)하고 있으나 극락은 남자뿐으로 여자가 없다. 도솔천은 수명이 4천세이나 극락은 무한이다. 도솔천에 왕생하여도 악심에 의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나 극락은 선심(善心)뿐으로 영원히 악도(惡道)를 떠나버린다. 도솔천에서는 미륵이 법을 설할 뿐이나 극락에서는 수조(水鳥)·수목(樹木) 등 모두가 법을 설한다"는 등 열 가지 상위한 점을 들어 극락이 도솔천보다 우수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왕생의 난이에 대해서도 논하여 말하기를 "극락왕생에는 단지 오계를 수지(受持)하면 되나 도솔 왕생(往生)을 위해서는 십선(十善)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극락은 십념 성취하여 왕생을 얻을 수 있다고 관경(觀經)에 설하고 있으나 도솔은 시(施)·계(戒)·수(修)의 3종을 구족하지 않으면 상생할 수 없다고 미륵경에서 밝히고 있다. 극락은 아미타의 48원에 의하여 타력왕생이 되나 도솔은 원(願)으로써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단지 자력(自力)을 갖고 왕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극락에는 관음(觀音)·세지(勢至) 등이 있어 신자의 명종시(命終時)에는 내영(來迎)하여 이들을 맞이하나 도솔천에는 이러한 보살이 없으므로 자신이 스스로 나아가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 여러 점을 들어 극락 왕생이 도솔 왕생보다 훨씬 쉽다고 밝히고 있다.[25]

이에 비해 유식학자인 규기(窺基)는 도솔천과 미타정토를 비교하여 도솔천을 더 우월하다고 보아 도솔 왕생을 권하고 있다.[26] 신라의 유식학자인 경흥은 미륵정토왕생과 미타정토왕생과의 난이 비교에 있어서 미타정토왕생의 용이성을 반박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한다.[27] 같은 유식학자이지만 신라의 경흥은 좀더 조화적인 주장을 펴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제 원효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자. 원효의 저술이라 하는 『유심안락도』에서도 왕생의 어려움과 쉬움(往生難易)에서 미타정토와 도솔천을 비교하고 있다.

---

25)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硏究』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3), pp. 42-43 참조.

26) 安啓賢, 앞의 글, p. 273 참조.

27) "이렇듯 미륵정토왕생과 미타정토왕생과의 난이 비교에 있어서 미타정토왕생의 용이성을 반박하는 것에서 원효와는 다른 경흥교학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미륵정토왕생의 용이성을 주장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생존하던 신문왕대로부터 멀리 내려가지 않는 聖德王(702-736)·景德王(742-764)대에 미타신앙과 미륵신앙이 동시에 이루어진 추세를 상기할 때 그것이 적어도 경흥교학의 뒷받침이 없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安啓賢, 「憬興의 미타정토왕생사상」, p.157). 여기에서 원효와 다르다는 것은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에서 미타정토의 우월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겠지만 『유심안락도』는 원효의 저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 여섯째 왕생의 어렵고 쉬운 것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먼저 두 곳의 좋고 못한 것을 밝히고 다음에 왕생의 쉽고 어려운 것을 말하겠다. . . . 대개 (도솔천과 극락정토를) 구분하면 14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 즉 첫째 도솔천은 땅이 좁고 . . . 열 넷째 성인의 과보를 얻기도 하고 혹은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방극락국토는 이와 반대이다. 때문에 서방극락세계가 크게 좋다. 다음에 왕생하기가 어렵고 쉬운 것에 대하여 논한다면 . . . 그러나 이와 같은 양설(극락이 쉽다거나 도솔천이 쉽다거나 한 두 가지 설)은 다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무릇 그 왕생에 쉽고 어려운 것은 다 인연에 일임할 것이다. 연(緣)이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동체대비이며 인(因)은 사중구배(四衆九輩)의 일으킨 바 원과 행인 것이다. 동체의 대비는 비록 사람에게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생의 업은 오히려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업인(業因)이 잘 성숙된 자는 원(願)을 따라 곧 태어날 것이다. 인간이며 천상이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거나 정토요 예토이기 때문에 구애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 원행이 없는 자는 도솔천이나 극락세계가 바로 앞에 있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니 어찌 같은 세계라 해서 왕생이 쉽고 다시 화현하신 몸이라 해서 곧 뵈올 수 있겠는가?[28]

이와 같이 『유심안락도』에서는 극락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왕생의 쉽고 어려움은 인연에 따른 것이라 하여 도솔천 왕생과 극락 왕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서방극락과 도솔천의 우열에 대해서는 극락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심안락도』가 원효의 저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저술이므로 이것에 근거해서 원효의 미타신앙과 미륵신앙에 대한 태도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9] 전체적으로 미타신앙의 우위를 말하는 『유심안락도』의 서술 방식 자체가 원효의 화쟁적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에 덧붙여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심안락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원효의 미타, 미륵신앙에

---

28) 『遊心安樂道』, 韓佛 1, p. 578上-中: "六往生難易 於中有二 先明二處優劣後述往生難易 . . . 廣分此彼 有其十四異 謂兜率天界地狹隘 . . . 又或得聖果 或有不得 若西方土 反此爲相 若就此義 西方大優也 後論往生難易 . . . 二說並不盡理 凡其往生難易 一任因緣 緣謂諸佛菩薩同體大悲 因是四衆九輩所起願行 同體之悲 雖無局人 衆生之業 猶是參差 若是業因熟者 隨願便生 非以人天如難往 亦以淨穢如有礙若其願行闕因者 在前無感 豈由同界而易生 復以化身而輒謁."

29) 『遊心安樂道』는 원효의 저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점점 정설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유진, 「원효의 미타정토사상」, 『원효사상연구』 (마산: 경남대출판부, 1988), pp.142-143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대한 태도는 어떠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신라의 미륵신앙과 미타신앙에 대하여 6, 7세기경에는 미륵신앙이 성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미타신앙이 더욱 성행하였다고 보고 있다. 원효는 당시 성행하던 미륵신앙에 대신하여 아미타신앙을 권유했으며 그것은 그의 미륵신앙관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즉 "원효는 중고기(中古期)에 성행하던 미륵하생신앙에 대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상생신앙에 의해 도솔천에 태어나더라도 불퇴전(不退轉)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관(觀)을 닦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원효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륵신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던 중생의 성불에 이르기 어렵다고 여겨졌으리라 생각된다"[30]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도록 하자. 물론 하생신앙에 대해서는 원효도 소승으로 보고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버리지는 않았다. 『하생경』, 『성불경』이 소승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근성에 따라 보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31] 이렇듯 하생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상생신앙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먼저 도솔천에 태어나더라도 관을 닦음으로써만 불퇴전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솔천에 태어난 다음에 관을 닦는 것이 아니라 관에 의해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이며 도솔천에 태어날 때 친히 미륵보살의 인도를 받으므로 불퇴전의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2] 그리고 원효가 미륵신앙에 대신해서 아미타신앙을 권유했다는 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33] 그렇다면 원효가 미륵신앙 대신에 미타신앙을 주장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원효는 미타신앙을 중시하여 미륵신앙에 대하여서는 2가지 정도 저술을 하였지만 미타신앙에 대해서는 12가지 정도의 저술을 하였다.[34] 저술의 양

30) 김영미, 「원효의 아미타신앙과 정토관」, 『가산학보』 2 (가산불교문화진흥원, 1993), p. 13 참조.

31) 앞의 각주 24 참조.

32) 주 13에 인용된 『미륵상생경종요』 중에서 제사과(第四果) 부분 참조.

33) 『三國遺事』「廣德 嚴莊」條에 의하면 원효는 엄장에게 미타정토의 관법으로 정관법(鋌觀法)—또는 삽관법(鍤觀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것이 아미타신앙을 권유한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륵신앙을 대신해서 이것을 권한 것은 아니다. 아미타신앙을 권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미륵신앙을 권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원효는 미타신앙에 있어서도 관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쟁관법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관의 일종인 것은 확실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만 놓고 볼 때에는 원효가 미타신앙을 중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륵신앙 중에서는 하생신앙 보다는 상생신앙을 중시한 것이 원효의 입장이다. 그런데 미륵과 미타를 비교하면 미타신앙을 더 강조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원효 당시의 신라에서는 미륵 신앙과 미타 신앙 모두가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6,7세기에는 미륵 신앙이 성행하다가 점차 미타 신앙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륵신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륵신앙 중에서는 상생신앙과 하생신앙 중 어느 것이 유행했는가? 상생 신앙과 하생신앙이 동시에 유행하였으나 신라 불국토사상은 하생신앙이 유행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35] 그것이 중국의 경우는 하생신앙이 현세 신앙적 색채를 띠고 발달해서 현세의 정토를 실현하려고 하는 민중반란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현세에서 수행을 통해 그대로 미륵불이 된다는 설화가 『삼국유사』에 남아 있고[36] 스스로 미륵임을 자처하는 신앙운동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37]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원효 당시에는 하생신앙이 좀더 유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미륵신앙 중에선 하생신앙이 주류를 이룬다 하더라도 미타신앙과 미륵신앙 중 어느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가? 두 신앙 모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두 신앙 모두 성행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심지어는 두 신앙이 혼동되기도 하므로[38] 어느 것이 주류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점

34) 최유진, 앞의 글, pp. 141-143 참조.

35) 李永子, 「羅末·後三國 彌勒信仰의 性格」,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編, 『韓國彌勒思想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7), p. 135 참조.

36) 『三國遺事』 卷3 塔像의 「南白月二聖 努肹夫得·怛怛朴朴」 條에 보면 경덕왕대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함께 수도하여 노힐부득은 미륵불이 되고 달달박박은 무량수불이 된다. 현재의 세계가 미륵불의 용화세계가 되고 현세의 왕은 전륜성왕이 된다. 신라불국토설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불이 있었던 정도에서 벗어나 미래의 미륵의 세계가 바로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37) 신라 말 궁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38) 앞서 언급한 달달박박 노힐부득의 경우 수도를 통하여 무량수불과 미륵불을 이루지만 그 이름에서는 혼동하고 있다. 즉 이름으로 볼 때 무량수불이 되어야 할 노힐부득은 미륵불이 되고 미륵불이 되어야 할 달달박박은 무량수불이 되고 있다. 무량수불과 미륵불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다. 즉 『삼국유사』 권3 탑상(塔像)의 「南白月二聖 努肹夫得·怛怛朴朴」 條에 보면 경덕왕대에 노힐부득은 아버지가 월장(月藏), 어머니가 미승(味勝)이고 달달박박은 아버지가 수범(修梵), 어머니가 범마(梵摩)라 하였다. 노힐부득은 미륵불이 되고 달달박박은 무량수불이 된다는 것이 이 설화의 내용이다. 그런데 『미륵하생경』에 의하면 미륵의 부모 이름은 수범마(修梵摩), 범마월(梵摩越)이다. 『미륵대성불경』에서는 수범마, 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점 미타신앙이 주류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9] 『삼국유사』등의 여러 기록에서 미타신앙의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술도 미타신앙 쪽의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생신앙이 주류로 되어 가는 상황에서 원효는 상생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민중들의 소박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관법을 수행하고 직접 미륵을 찾아나서는 신앙을 강조한 것이다. 미타신앙에서도 원효는 발보리심(發菩提心)을 정인(正因)으로 하며 관법을 강조하고 있다.[40] 원효의 미륵신앙에 대해 유가사상(瑜伽思想)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41] 그 지적이 옳다면 미륵을 중시하는 것이 유가사상이므로 원효가 미륵신앙을 버리고 미타신앙에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륵상생경종요』의 성립 시기는 물론 확실하게 알 수 어렵지만[42] 설령 초기의 작품이라고 해도 그가 후기에 유식을 완전히 버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미륵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성행하던 미륵과 미타의 신앙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효의 화쟁적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마발제(梵摩跋提)이고 『미륵하생성불경』에서는 묘범(妙梵), 범마파제(梵摩波提); 『미륵상생경』에서는 파바리(波婆利)가 아버지인데 이는 현생에서의 아버지이다. 후세에 인간세계에 내려 왔을 때의 부모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미륵래시경』에서는 수범(須梵), 마하월제(摩訶越題)라 하였다. 한편 아미타불의 부모 이름은 『아미타고음성왕타라니경』(阿彌陀鼓音聲王陀羅尼經, 『대정신수대장경』 12권)에 의하면 부는 월상전륜성(月上轉輪聖), 모는 수승묘안(殊勝妙顔)이라 하며 아들은 월명(月明)이다. 이름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나—노힐부득의 부모 이름은 월장과 미승, 아미타의 부모 이름은 월상과 수승묘안, 달달박박의 부모 이름은 수범과 범마, 미륵의 부모 이름은 수범마, 범마월—미륵과 아미타의 부모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때에도 미륵신앙과 미타신앙이 함께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9) 중국의 경우도 미륵신앙이 아미타신앙에 앞서 발달하지만 당나라 무렵에는 그 자리를 아미타신앙에 물려준다(速水侑, 앞의 책, pp. 37-39 참조).

40) 최유진, 앞의 글, pp. 139-163 참조.

41) "원효대사는 유가사상을 통한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오형근, 앞의 글, p. 83).

42) 다음과 같이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일미관행이라 하여 상생경과 거의 같은 삼매를 중요시하고 있다. . . . 따라서 이 논과 종치가 같은 상생경종요도 후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단지 원효의 사상적 중심이 되는 기신론이 무량수경종요에는 인용되는데 상생경종요에는 명목이 인용되지 않아 문제점은 남는다"(許庚九, 「元曉의 彌勒思想 硏究」, pp. 43-4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Ⅵ. 결 론

원효의 미륵사상은 주로 그의『미륵상생경종요』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미륵상생경종요』는 그 내용에서 열 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논의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이 경의 대의와 주요한 가르침을 밝히는 부분에서 원효는 미륵을 찬탄하고 관을 닦아 그 미륵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 경전의 핵심이라고 한다. 즉 원효에 있어서는 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하늘의 의보를 관찰하는 것과 보살의 정보의 뛰어남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에 의해 미륵의 도솔천에 태어나 불퇴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 이외에 세 가지 행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도솔천왕생에의 원인은 이 두 가지 관이라는 것이 원효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미륵계의 세 경전 즉『상생경』,『하생경』,『성불경』의 같고 다름에 대해서 원효는『상생경』은 대승에 속하지만『하생경』,『성불경』은 소승에 속한다고 판정한다. 하생신앙보다는 상생신앙을 좀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원효의 입장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소승에 속하는『하생경』, 성불경』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원효의 주장이었다. 원효가 하생신앙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미륵정토과 미타정토의 우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원효가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효의 저술로 전해져 오는『유심안락도』에서는 미타정토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저술은 원효의 저술이라고 믿기 어려우며 미타정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종파적 태도 자체가 원효의 화쟁적 입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원효는 실천적 입장에서 해탈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미타와 미륵의 두 신앙 모두가 인정이 된다. 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효이므로 미륵신앙 중에서는 하생신앙보다는 상생신앙에 무게를 더 두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천적 입장에서 상생신앙, 하생신앙이 모두 인정이 된다. 이와 같이 원효는 미륵신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다양한 가르침이 중생들의 제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원효의 입장이었다. 그는 대중적인 신앙의 하나인 미륵신앙을 이렇게 널리 펴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참고문헌

『彌勒上生經』

『彌勒下生經』

『彌勒大成佛經』

『彌勒上生經宗要』

『遊心安樂道』

『三國遺事』

金三龍,『韓國彌勒信仰의 硏究』, 동화출판공사, 1983.

金英美,「元曉의 阿彌陀信仰과 淨土觀」,『伽山學報』2, 伽山佛敎文化振興院, 1993.

김지하 외 지음,『미륵사상과 민중사상』, 한진출판사, 1988.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院 編,『韓國彌勒思想硏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박성배,「Alan Sponberg의 "彌勒上生經宗要解說"을 읽고」, 韓國思想史學會 編,『彌勒思想의 本質과 展開』, 韓國思想史學 제6집, 서문문화사, 1994.

安啓賢, 「元曉의 彌勒淨土往生思想」,《歷史學報》17·18, 歷史學會, 1962.

安啓賢,「憬興의 彌勒淨土往生思想」,『佛敎學報』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63.

李箕永,「元曉의 彌勒信仰」,『韓國佛敎硏究』, 韓國佛敎硏究院, 1982.

이종익 편저,『미륵성전』, 운주사, 1992.

장지훈,『한국고대미륵신앙연구』, 집문당, 1997.

최유진,『원효사상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許庚九,「元曉의 彌勒思想」,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許庚九,「元曉의 彌勒上生經典觀」,『韓國思想史: 釋山韓鐘萬博士 華甲紀念論文集』, 圓光大學校, 1991.

渡辺照宏 著, 呂益九 譯,『사랑과 평화의 마이트레야』, 여래, 198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

宮田登 編,『彌勒信仰』, 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88(初版 1984).
速水侑,『彌勒信仰』, 評論社, 1991(初版 197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0/01 14:58(KST)